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2008학년도 학위전수식
* 일시 : 2009. 2. 28(토) 11:00
* 장소 : 지역대학 대강당

제1829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2월 24일 (음력 1월 30일) 화요일

여야 입법전쟁에 밀린 'F1 지원법'

이달 국회 통과 무산 위기

F1 지원법(F1 포뮬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며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23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 갑)에 따르면 F1 지원법의 상정 등을 논의할 국제경기지원 특위가 오는 27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3월 3일 종료 예정)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는 점에서 주말을 제외하면 F1지원법을 다룰 시간은 극히 짧아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절차상 F1 지원법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상정→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등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위 일정이 늦어진 것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등 바쁜 국회 일정 등이 1차적 원인이지만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갖고 있다.

물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2일만에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고 지원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소관 부처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F1 지원법 처리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공감대도 부족해서 속전속결 처리가 난망한 실정이다.

이처럼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배경은 여야가 '법안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F1 지원법이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전남도와 회동을 갖고 F1 지원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놓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8개 중점 처리 법안에서 F1 지원법은 제외됐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F1 지원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7일에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만나 F1 지원법 제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실천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F1 지원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에 상정만 된 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윤진보 전남도 F1대회 준비기획단장은 "지원법안의 통과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면서 "전남도는 이번 회기 내에 지원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U대회 유치 열기 뜨겁다 23일 광주시 동구청 광장에서 열린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 기원 동구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오색풍선과 태극기를 흔들며 U대회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시민 등 4천여명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1절 전국마라톤 D-5

광주·전남 250개교 답안지 재확인

시·도교육청 '성취도' 800여개교 전면 재조사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파문과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빠르면 25일부터 800여개 학교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된 초·중·고 250개교에 대해선 시험지와 답안지를 대조하는 등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의 초등학교 451곳 중 219곳이 5개 과목 모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성적 오류 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25일부터 800여개의 일선 학교와 24개 지역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3월 20일까지 교과부에 보고된다.

집중 조사 대상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 0% 학교'는 광주에선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6곳 등 21곳이며, 전남은 초등학교 219곳과 중학교 6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229곳이다.

이들 학교에 대해선 전문직과 일반직, 감사팀이 투입돼 시험지와 답안지를 일일이 대조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교장·교감·전문직 460명 인사
▶관련 기사 7면·명단 16면

비 100㎜ 더 와야 해갈

올 봄 황사 잦고 짙어

이달 들어 전남 지역에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저수지 65곳의 평균 저수율은 45%에 머무르고 있으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4개 댐의 평균 저수율은 34%에 그치고 있다. 이들 저수지와 댐의 수위는 이달 중 10여 일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내린 비에도 불구, 1%포인트 안팎의 변화만 보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18개 시·군에서는 모두 258개 마을에 대해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농업용수도 크게 모자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2차례 내린 비가 밭작물 해갈에는 조금 도움이 됐지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3천200여 곳의 평균 저수율은 겨우 48%에 머물고 있는 상태여서 물 걱정 없이 모내기를 할 수 있는 70~80%의 저수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100mm 이상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줘야 하지만, 장마철까지 큰 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올해 봄철 황사가 우리나라에 평년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여름에는 무덥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이변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상청은 "올해 여름엔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큰 가운데 대기불안정 및 저기압의 발달로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알 림

제3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안영근 교수 '가슴이 아파요!'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 제34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가슴이 아파요!'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흉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해줄 것입니다.

강좌의 내용은 3월 9일(월요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제 : 가슴이 아파요!
■강 사 :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미국·일본·유럽심장학회
-미국심장중재술학회
-미국 유전자치료학회
-과학기술부 선정 세포치료연구사업단장

■일 시 : 2월 27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